

추가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중에 지방 대책은 또 빠지나

정부, 수도권 집값 과열에 세 번째 대책 예고
광주·전남 등은 되레 역풍 우려에 불만 쏟아져

수도권 중심 집값 과열 양상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도 침체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빠지고 수도권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등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이제명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수도권 아파트 확대에만 집중되는 바람에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만 되레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 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정협의회 소식을 접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추가 대책 역시 기대했던 지방 활성화 대책은 빠지고, 수도권 중심으로만 흐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대책을, 9월 7일 ‘2030년까지 135만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놔는데, 두 정책 모두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상으로만 설계돼 지방 주택시장은 방치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27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가 담겼지만 정작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 대상의 지원책은 없었고, 9·7 대책 또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 정책이 은행권에 ‘대출 규모 축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지방 부동산 대출까지 축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가뜰이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지방 아파트 시장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정부가 건설 업계에 수도권 내 대규모 아

파트 신규 공급이라는 화재까지 제시함에 따라 지방 신규 아파트 시장 축소 등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이 포기한 전방·일신방직 아파트 개발 사업 철수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건설 업체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만 쌓여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광주·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1370호, 2828호 등이다.

특히 전남 등 인구 소멸 지역은 주택 거래량 자체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고사 위기다.

지역 건설 업체를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일단 수요가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광주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 쏠리면 지방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고, 결국 인구와 자본 등도 모두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된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없이는 국가 균형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추석세트 보냉가방 회수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추석 선물세트 보관용 보냉가방을 돌려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1월 2일까지 사은행사장에서 ‘보냉가방 회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올해 추석 선물세트를 통해 받은 롯데백화점 전용 정육·곶감·선어 선물세트 보냉가방을 반납하면 1인 5개 한도로 1개 당 엘포인트 300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회수된 보냉가방은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용 가방으로 기부되거나 재활용 굿즈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전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전국 광역·강소특구 소재 기업 대상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국 19개 광역·강소특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핵심 기술을 사전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7일까지 공모에 응모하면 된다. 한전은 11월 중 응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2026년 1월 3개

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모 과제는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팩 내장형 소화수 분출 장치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액집형 ESS’ 최적 운영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화,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반 AI 추론의 고속화 및 전력 효율성 검증, 계통연계 인버터 개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한전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문제해결형 과제’를 한전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자금을 기업당 3000만원 지급하고, 사업부서 전담 매칭 및 실증 기회 부여, 연구개발

발특구육성사업 및 특구제도와 연계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특구 기업의 신속한 혁신 역량과 한전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현장 문제 해결부터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협력모델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나주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는 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를 열고 사업 및 공모 과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내 홍보센터·협력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93% 가결

노사 임단협 타결 결렬

금호타이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노조)이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국산·평택공장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성·반대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93.36%)이 참여했다. 그 결과 투표 참여 인원 3261명 중 3054명(93.65%)가 찬성해, 노동조합의 쟁의 결의가 가결됐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본 교섭 11차례, 실무위원회 4차례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0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에 나섰다.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배분,

별도 요구안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합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의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투표 결과와 쟁의 결의가 성사된 데 따라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 및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은 정당하고 합당한 조합원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경영진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놔야 한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 여부를 결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교섭이 장기화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광주공장 재건과 합평 신공장 건설, 미국·유럽 관세 등 대내외적으로 회사 미래에 대한 중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해 노사가 미래 역량에 집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GICON, 다음달 11일까지 AI 콘텐츠 공모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인공지능(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확산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광주시민을 비롯한 광주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역 소재 기업(기관)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AI 스킵 영상으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모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광주 온에어스테이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30점, 표현력 35점, 완성도 35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AI 톨

활용도, 모델 수준, 조화성 등은 가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셋째 주 성과공유회를 통해 발표 및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개 팀에게 100만원과 AI 톨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최우수상 2개 팀에는 각 50만원과 AI 톨 1개월 이용권, 우수상 3개 팀은 각 30만원, 장려상 5개 팀에게도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AI 톨을 활용해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창작자들의 실험적 시도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최근 5년 집값 담합 25건 신고 접수

수도권 71% 집중…부산 2위

최근 5년 간 광주·전남지역에서 25건의 집값 담합 신고가 정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 건 수는 23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생활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경기가 1088건(47.1%)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344건·14.9%), 부산(287건·12.4%), 인천(222건·9.6%)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1654건(71.5%)의 집값 담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대구(85건·3.7%), 경남(62건·2.7%) 등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광주·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 담합 신고 접수건수가 많지 않았다. 광주는 최근 5년 간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연도별로 2020년 11건, 2021년 7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0건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전남은 최근 5년 간 5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제2(2건)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치다.

민 의원은 “집값 담합 신고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현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왜곡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3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율 1430원 넘자 외환당국 개입으로 진정

1420원대 중반 마감

원/달러 환율이 13일 마·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에 1430원대로 뛰었다가 외환당국 구두개입으로 1420원대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25.8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9일(주간 거래 종가 1437.3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34.0원까지 상승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 마·중 무역 전쟁 확대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영향으

로 풀이된다.

외환당국은 이날 환율이 1420원대 후반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오후 한 때 1430원을 다시 넘어서자 구두개입에 나섰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584.55 (-26.05)
↑ 코스닥	860.49 (+1.00)
↓ 금리 (국고채 3년)	2.554 (-0.037)
↑ 환율 (US D) 〈오후 4시 34분 기준〉	1428.05 (+7.05)